

#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 재정경제부, 혁신·구조개혁 드라이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부총리’)은 6월 1일 (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부총리는 5.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간의 경제 분야 성과 점검을 마무리하였고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정경제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 및 「제2회 팀확행\* 포상 및 5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팀확행 포상 부서로는 재산세제과,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되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팀워크를 발휘하여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제도

###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요 성과
①	재산세제과	부동산, 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
②	경제분석과	최근 경제동향의 종합 및 부문별 평가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에 대응
③	혁신정책담당관	우리부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 역량 강화 노력 지속 추진
④	공공정책총괄과	해외사무소를 하나로 잇는 「K-마루」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⑤	경제협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우즈벡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

5월 베스트 소확행으로는 출서관리과 전형용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전 사무관은 37년만의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제조·유통되던 액상 담배를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이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2기 인공지능(AI) 단기집중반(5.18(월)~21(목), 태안)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의 주요 프로젝트 3건을 시연\*하였다.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구 부총리는 각 프로젝트 시연이 종료된 후, “부내 인공지능(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형태의 재경부 특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급·고급 교육 프로그램도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2510)
		담당자	서기관	고대현 (kothere85@korea.kr)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의택 (044-215-2530)
		담당자	서기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